

## 3급 이해 듣기 대본

※ [1~2] 다음 내용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남자 : 저기 보세요. 제일 앞에서 뛰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여자 : 와, 민수 씨가 일등이에요.

2. 여자 : 영수 씨 아니면 큰일날 뻔 했어요.  
남자 : 계단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자 : 빨리 내려가려고 서두르다가 그랬어요.

※ [3~7]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각 3점)

3. 남자 : 오래간만이에요, 수미 씨.  
여자 : 어, 영수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남자 : \_\_\_\_\_

4. 남자 : 어디 아파요?  
여자 : 어제부터 자꾸 배가 아픈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 \_\_\_\_\_

5. 여자 : 아직도 일 안 끝났어?  
남자 : 응. 아직 많이 남았어. 내일 하면 안 될까?  
여자 : \_\_\_\_\_

6. 여자 : 방 한 개가 필요한데요. 스키장이 보이는 쪽으로 해 주세요.  
남자 : 죄송합니다. 스키장이 보이는 쪽은 한 달 전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여자 : \_\_\_\_\_
7. 여자 : 서울 미술관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남자 : 서울 미술관요? 이쪽으로 쪽 가세요.  
여자 : 혹시 그 미술관이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아세요?  
남자 : \_\_\_\_\_

※ [8~12]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8. 여자 : 여행 다녀왔어요?  
남자 : 네. 경주에 갔다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여자 :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남자 :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9.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이웃이 많습니다. 정을 나눠 보세요. 이웃이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서울 수영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30분 동안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11. 오늘은 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떡은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떡보다 서양의 케이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양의 케이크처럼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떡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하나떡방'에서 처음 보여 드리는 이 떡, 드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여자 :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남자 :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면 훨씬 잠 들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거겠죠.

※ [13~17] 다음 내용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3. 
 시장에 갈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시다면, 걱정 끝! (광고 톤으로)  
 이번에 문을 연 하나 슈퍼마켓으로 오십시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배달요? 물론이지요.  
**(다른 톤) 하나 슈퍼마켓**

14. 
 남자 : 우리 나가자.  
 여자 : 추운데 어딜 가?  
 남자 :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에 안 좋아. 추울수록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걸어 다녀야 건강해지는 거야.  
 여자 : 그래도 난 싫어. 난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을래.

15. 여자 : 손님, 지금은 환자를 만나실 수 없습니다.  
남자 : 네? 왜요?  
여자 : 평일에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자 : 그럼 저녁 때 다시 와야겠군요.
16. 여자 : 여름이라서 그런지 비가 자주 온다.  
남자 : 글썸 말이야. 그런데 내일도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여자 : 내일 뭐 중요한 일 있어?  
남자 : 친구들과하고 등산 가기로 했거든.  
여자 : 오늘 아침 일기 예보에서는 오늘 밤까지만 비가 약간 더 오고 내일은 안 온다고 했어.
17. 여자 : 민수 씨,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와 보니 참 좋네요. 이곳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서 좋겠어요 .  
남자 : 여기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여자 : 민수 씨는 시골 사람이 다 된 것같이 말씀하시네요.  
남자 : 저요? 저는 이제 다시 도시에 가서 살 생각이 없어요. 수미 씨는 시골에 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자 : 아뇨. 잠깐 놀러 오는 것은 좋지만 사는 것은 싫어요.

※ [18~20] 다음 내용을 듣고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8. 여자 : 집 안에서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 : 자기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동 주택에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조용하게 키워야 하겠지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전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9. 여자 :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내가 인사를 해도 아는 척을 안 해.  
남자 : 네가 인사하는 걸 못 봤겠지.  
여자 :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부터 인사 안 할 거야.  
남자 : 그러지 마.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때 그 옆집, 앞집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와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빨리 끌 수 있었어.

20. 남자 :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여자 : 아침에 언니와 싸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싸운 것보다 더 화나는 것은 언니가 싸울 때마다 내가 오래 전에 잘못된 일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 수미 씨와는 성격이 다른가 봐요.  
여자 : 네. 저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빨리 잊어버리는데 우리 언니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 : 그래도 싸울 때 빼 놓고는 언니가 있어서 좋잖아요. 난 형제가 없어서 외로워요.

※ [21 ~ 22]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 김 사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여자 :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남자 : 11시에 사장님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자 : 아, 네. 그런데 오늘 회의 시작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30분 정도는 더 있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남자 : 그럼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회의가 끝나면 이 전화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21.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4점)

남자 : 다 골랐어?  
여자 : 응. 이 목걸이하고 귀고리.  
남자 : 그럼 빨리 사 가지고 가자.  
여자 : 그런데 돈이 좀 모자라서 두 개 다는 못 살 것 같아.  
남자 :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자 : 할 수 없지 뭐. 귀고리는 다음에 살래.

22. 여자가 뭘 샀는지 쓰십시오. (3점)

※ [23~24]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요즘 우리 나라의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자 :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 : 장마 기간이 너무 짧고 비도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장마인지 아닌  
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요.  
남자 : 그렇다고 기후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여자 : 아, 또 있어요. 옛날보다 눈도 덜 오고요. 겨울 날씨가 별로 춥지도  
않아요.

23.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쓰십시오. (4점)

( )

24.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3점)

※ [25~26]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  
십시오. 이 물고기들도 우리처럼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강물이 깨끗하  
지 않았다면 물고기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강에서 노는 어린 아  
이들의 얼굴도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고기를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25.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쓰십시오. (4점)

( )

26.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3점)

※ [27~28]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남자(할아버지 목소리) : 사랑스러운 내 손녀딸 수미야, 널 처음 안아 보던 날을 난 잊을 수가 없단다. 얼마나 예쁘고 귀엽던지……. 부디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커 주기만을 바란다. 축하한다.  
여자(젊은 엄마) :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수미야, 내가 널 낳고 기뻐서 울었던 걸 넌 모르겠지? 근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난 너와 같이 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 건강하게 잘 커 줘야 돼. 알았지? 사랑해.

27. 무엇을 축하하는 이야기인지 쓰십시오.

28.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 [29~30]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여자 : 전 아파트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자 :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자 : 옆집, 윗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괴로워요. 게다가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참을 만했어요.  
남자 :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자 : 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처음에는 겨울이라서 난방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내면서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9.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쓰십시오.

30.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